

## 콘스탄틴 레온티예프와 불가리아 교회 독립문제

한 정 숙\*

### 1. 머리말

콘스탄틴 레온티예프(Константин Леонтьев, 1831~1891)는 러시아 사상사에서 확실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생전의 영향력에 비하여 사후에 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고, 러시아 종교, 정치사상사의 스펙트럼 가운데 그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의견들이 여전히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sup>1)</sup> 그는 실망한 친슬라브파(славянофил)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친슬라브파가 아니라고 평가되기도 하였고,<sup>2)</sup> 한 동안은 가치 없는 반동사상가로만 치부되다가,<sup>3)</sup> 최근에 이르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1) 레온티예프에 대해 그 동안 이루어진 여러 평가들에 관해서는 『К. Леонтьев: pro et contra. Личность и творчество Константина Леонтьева в оценке русских мыслителей 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нига 1-2』(1995),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清水昭雄, “К. Леонтьев 연구小史”, 『ロシア史研究』, 제 57호, 2-18면 등을 참조하십시오.
- 2) 레온티예프를 친슬라브파로 규정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세르게이 트루베츠크이(Сергей Трубецкой), 파벨 밀류코프(Павел Милюков) 등이다. 『모스크바 통보』(Московские Ведомости)의 편집자로서 레온티예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던 카트코프(Михаил Катков)도 그를 친슬라브주의자로 규정하였다. К. Леонтьев(1996)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ев против Данилевского”,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Москва, 495면. (레온티예프의 저작 선집인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는 1912년에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레온티예프 전집 가운데 정치, 종교, 국제문제에 관한 그의 평론을 수록한 5, 6, 7권의 내용 대부분을 전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래에 새로 발굴된 평론문도 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사회 종교사상을 고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출판물이다).

러서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진 인물로까지 격상되고 있다.<sup>4)</sup>

그는 많은 모순에 찬 인물이었고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면 금욕을 설파하는 종교성 깊은 인물이면서도 미적 기준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탐미주의자로서 귀족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려 들었고,<sup>5)</sup> 유럽문명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문화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데 문필가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걸다시피 하면서도 서구화 정책을 주도하였던 표트르 대제를 찬양하는 반면,<sup>6)</sup> 러시아 민중의 전통적 생활방식이나 표트르 이전의 전통 러시아 사회에 관심을 돌리는 친슬라브파의 경향을 일소에 부쳤던 것<sup>7)</sup> 등이 그가 드러냈던 수많은 모순들에 속한다.

이 글은 레온티예프 사상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약소민족의 민족주의와 관련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는 그가 친슬라브주의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자신은 자기가 특수한 부류의 친슬라브파라고 말한 적이 있고,<sup>8)</sup> 실제로 그의 반(反)서구주의

반면 제3세대 친슬라브파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세르게이 샤라포프(Сергей Шараров) 같은 인물은 레온티예프의 정치적 반동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나섬으로써 그와 친슬라브파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를 차단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А. Л. Янов(1999) 『Россия против Росси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1825-1921』, Новосибирск, 215면.

3 소련시대 러시아 학자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러했다.

4 예언자로서의 레온티예프의 통찰력을 강조하는 견해는 러시아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구 소련학계 출신 러시아 연구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Александр Корольков "Послесловие. Пророк в своем Отечестве", 『Константин Леонтьев: pro et contra. Книга 2』, 696면. 소련체제에 반대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지식인으로서,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알렉산드르 야노프 같은 학자의 인용에 따르면 이탈리아 철학자 가스파리니는 레온티예프야말로 미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을 한 인물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Янов, 『Россия против России』, 217면.

5 제정 러시아 시대 깔루가 주의 쿠디노보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레온티예프는 오스만 제국 내 톨차에서 영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1867년 8월 12일 지인(知人) 구 바스토프(К. А. Губастов)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이 도나우 강변의 도시에서 얼마나 러시아 귀족다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Константин Леонтьев(1993) 『Избранные письма 1854-1891』,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53면.

6 К.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102면.

7 Леонтьев "Над Могилой Пазухина",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683면; "Славянофильство теории и славянофильство жизни", 같은 책, 685-686면.

8 Янов 『Россия против России』, 219면.

와 친슬라브파의 반(反)서구주의는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친슬라브주의와의 관련 문제는 그때 그때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서구문명에 맞서는 동방세력의 결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형태는 어떻게 상정되고 있었던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그가 범슬라브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였던가, 슬라브 민족들의 민족주의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던가 하는 점들이다. 레온티예프가 주로 활동하였던 19세기 후반은 러시아에서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이 점점 증대하였고, 그 또한 콘스탄티노플(그가 주로 사용한 어휘를 빌면 짜리그라드<sup>9)</sup>)을 러시아가 장악해야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범슬라브주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의 콘스탄티노플 장악론은 일반적인 범슬라브주의자들의 논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슬라브 민족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도 일반적 범슬라브주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 글은 19세기 후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배 아래 있던 슬라브 민족들의 독립, 특히 불가리아인들의 교회독립 문제를 둘러싼 그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레온티예프의 반서구주의 사상 속에서 슬라브 민족 문제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던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칸 슬라브인 문제에 대해 전개되었던 논의의 스펙트럼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 2. 범슬라브주의에서 불가리아 문제의 의미와 불가리아 교회 독립

러시아 범슬라브주의의 전개에서 불가리아 문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4세기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아 온 불가리아인들 사이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적 발전은 발칸반도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9 레온티예프는 현실의 도시를 칭할 때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러시아가 이 도시를 장악해야 된다는 논의를 펼칠 때에는 이를 항상 짜리그라드라고 불렀다.

편이다.<sup>10)</sup> 프랑스 혁명과 특히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18세기 말,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 지배 하의 발칸반도 주민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민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그 이전에 맹아적 형태로 나타났던 민족주의적 움직임<sup>11)</sup>이 불가리아인들 사이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 왔던 그리스가 1830년대에 독립한 것은 불가리아인들에게 분발의 계기가 되었다.

불가리아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은 19세기 중부 및 남부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의 일반적 양상과 다르지 않다. 불가리아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재력가들의 도움이나 모금운동을 통해 학교를 세워서 이 곳에서 교육받는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근대 불가리아어의 정비에 힘써 불가리아 문학을 성립 발전시키고 이를 민중에게 보급시키고자 애썼다.<sup>12)</sup> 초기에는 문화적 자치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움직임이 정치적 독립운동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것도 일반적 양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불가리아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인종구성상 슬라브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또한 인구의 대다수가 정교를 신봉하고 있던 강대한 “형제국” 러시아를 의식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대의명분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에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기대하게 되었다. 세르비아인들·체히인(체코인)들·슬로바키아인들과 같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거나 합스부르크 제국 치하에 있던 다른 슬라브 민족들도 역시 19세기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자치 혹은 독립의 실현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되었고 이러한 기대가 일부 슬라브 지식인들 및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범슬라브주

10 Charles and Barbara Jelavich(2000) 『The Establishment of the Balkan National States, 1804-1920』, Seattle and London, 128면.

11 18세기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불가리아 역사를 집필하여 자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했던 최초의 인물은 정교 성직자였던 파이시였다. 그는 1762년에 집필된 『슬라브-불가리아 역사』에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불가리아 조국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국주의적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적 긍지를 일깨우고자 하였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특히 자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artin V. Pundeff(1994) “Bulgarian Nationalism”,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ed. by P. F. Sugar & I. J. Lederer, Seattle & London, 101면.

12 R. J. Crampton(1997) 『A Concise History of Bulgaria』, Cambridge, 60-66면.

의 구상, 곧 러시아 주도 아래 슬라브 민족들이 연방을 이룬다는 목표로 발전하였다.<sup>13)</sup> 중동부 유럽 민족들의 민족주의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했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통치기가 지난 후, 크림 전쟁의 와중에서 즉위한 새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치하에서는 슬라브인들의 연대라는 범슬라브주의적 주장이 러시아의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도 좀더 넓은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었다. 1858년에 설립된 슬라브인 복지위원회와 1867년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민속학 박람회 및 슬라브인 대회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범슬라브주의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가리아 민족운동 지도자들 중에도 류벤 코라벨로프 같은 일부 인사들은 범슬라브주의가 슬라브인들을 모두 러시아의 발바닥 아래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민족이 이 강대국의 지나친 영향 아래 들어가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으며, 자민족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고 개명된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sup>14)</sup>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불가리아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가리아 민족지도자들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슬라브 민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데 힘입어 자신들의 민족적 대의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러시아 내에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850년대에 러시아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활동한 니콜라 팔라우조프, 나이텐 게로프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1867년의 슬라브 대회에는 보고로프라고 하는 지리학자 한 명이 불가리아 대표로 참석하였을 뿐이고<sup>15)</sup>, 팔라츠키나 리게르 같은 쟁쟁한 인물이 참석한 체히인 대표단에 비교하여 볼 때 그의 활동은 거의 눈길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인들의 민족주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고 러시아와의 관련이 끊어졌던 것도 결코 아니다. 1877-8년의 노토(露土) 전쟁은 바로 불가리아 독립 전쟁이기도 하였다. 1876년 발칸 전쟁의 와중에서 불가리아인들이 투르크 군대에 의해 학살당한 “불가리아의 참극”(the Bulgarian Horrors)이 발생하자 ‘이교도 오스만 제국의 치하에서 탄압받는 정교 형제 불가리아인들’의 고통에 대한 러시아인

13 1848년 슬라브인 연석회의까지 범슬라브주의의 전개에 대해서는 F. Fadner(1961) 『Seventy Years of Pan Slavism in Russia. Karazin to Danilevskii 1800-1870』,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1-72면을 참조하십시오.

14 Pundeff 『Bulgarian Nationalism』, 111-112면.

15 M. B. Petrovich(1956) 『The Emergence of Russian Pan Slavism 1856-1870』, New York, 129-131, 202-203면.

들의 연민과 이들의 해방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의식은 이 시기에 절정에 이르렀고, 불가리아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장악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요구와 맞물림으로써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전쟁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 불가리아는 오스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범슬라브주의는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이었다.

불가리아 민족주의의 전개 및 불가리아의 정치적 독립 획득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불가리아 교회의 독립이다.<sup>16)</sup> 주민 대다수가 정교를 신봉하는 불가리아인들은 독립국이던 시절 종교적으로 자국의 독립수장(autocephalous)교회인 투르노보 총대주교좌를 인정받았었다(1235-1394). 그러나 그 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들면서 이 같은 사정은 바뀌었다. 투르노보 총대주교좌는 철폐되었고, 불가리아인들은 주민들을 종교에 따라 밀레트라는 종교-정치적 공동체에 편성시켜 두고 있던 제국의 정교일치 정책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그리스인 성직자들이 신앙문제에 관해 불가리아인들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정교민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같은 종교의 신도라는 이유로 이민족인 그리스인들의 종교적 지배를 감수해 온 셈인데, “파나리오트”(Phanariote)<sup>17)</sup>라 불리는 특수층 그리스인들은 종교적 특권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도 제국 내 다른 정교주민들을 지배하였다. 19세기 전반에 민족의식이 각성됨에 따라 오스만 제국 내 정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리스인들의 종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세르비아인들·그리스인들·루마니아인들은 정치적 독립의 달성과 함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에서 분리된 독립수장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불가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이 움직임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편이기는 하지만, 1860년 부활절 예배에서 불가리아인 주교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이름을 고의로 축복하지 않았던 일을 계기로 불가리아 민족

16 불가리아 교회독립의 의의와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Pundeff, 『Bulgarian Nationalism』, 112-115면; Crampton 『A Concise History of Bulgaria』, 66-76면을 참조하시오.

17 Phanariote는 영어식 표기이며 Phanariot라 표기하기도 한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18-19세기에 행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스인들 혹은 그리스화한 이탈리아인, 루마니아인들 및 알바니아인들을 가리킨다. 정교 신도들인 이들이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구역들 중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가 위치하고 있던 파나르(Phanar: 등대라는 뜻) 지구에 주로 살았던 데서 이 같은 명칭이 유래하였다.

교회의 독립을 향한 노력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서 자력만으로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불가리아인들은 역설적으로 오스만 투르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폐쇄되었던 투르노보 총대주교구의 재건을 인정해 줄 것과 이 총대주교구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투르크 정부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불가리아 민족의 경우에는 그들이 다른 정교민족들과는 달리 여전히 오스만 제국에 복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족자치교회의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불가리아인들의 이 같은 노력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의 위상격하를 우려하는 그리스인들과 불가리아인들 사이에 당연히 반목을 초래하였으며, 이 두 정교 민족 사이에는 단순한 교회조직상의 갈등을 넘어선 정치적 갈등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종교적 쟁점이라는 외피아래 진행된 불가리아 민족주의와 그리스 민족주의 사이의 전면적 투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한다.<sup>18)</sup> 이 과정에서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도움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교회도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투르크 주재 대사 이그나티예프의 미온적 언행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이 불가리아를 지원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원치 않았으나, 이와 동시에 불가리아인들을 실망시키는 경우 그들 사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력이 강화될 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었다.<sup>19)</sup> 러시아 교회는 아예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다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불가리아 민족교회 추진자들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양자에게 상호 양보를 통한 화해를 촉구하였을 뿐이다.<sup>20)</sup>

그러나 불가리아 민족교회 수립 노력은 그리스 성직자층의 특권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정부가 1870년 불가리아 총대주교구 대리좌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불가리아 교회의 독립은 이른바 교회문제에서의 종족주의

18 L. S. Stavrianos(2000) 『The Balkans since 1453』, New York, 372면.

19 같은 책, 373면.

20 В. И. Косик & Г. Б. Кремнев “Греко-болгарский вопрос”, Приложение к К. Леонтьев,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794면.

최근에 출판된 총 9권 11책짜리 방대한 『러시아 교회사』(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церкви (Москва 1994-1997))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야말로 러시아 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처하였던 곤란한 입장에 대한 반증이다.

(phyletism), 곧 교회법의 적용범위를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민족에 따라 설정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여겨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불가리아 성직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872년 5월 불가리아 교회 독립을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한편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의 대결이었던 불가리아 교회독립문제와는 달리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한 불가리아인들의 도전이었던 정치적 독립 노력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 내에서도 광범한 지지를 얻게 되었고 범슬라브주의의 물결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슬라브주의의 고조기에도 불가리아인들의 민족주의적 활동에 대한 러시아 여론 혹은 정책당국의 태도는 사안에 따라 각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 3. 민족주의 및 민족운동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견해

레온티예프는 19세기 후반의 서구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이자 비서구사회의 문화적 독자성의 열렬한 옹호자였다. 서구문명은 흔히 그렇게 주장되는 것처럼 보편성을 띤 것이 결코 아니고, 개별 사회는 모두 독자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개별 문화는 모두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그의 정치사상의 핵심적 전제였다. 그는 자신이 다닐레프스키의 역사문화유형론에서 영향을 받아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제자라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하였거니와,<sup>21)</sup> 실제로 그의 사상에서 이 같은 영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러시아 사상사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된 것과 마찬가지로 레온티예프에게서도 서구라는 개념은 종교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로부터 갈라져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하는 라틴-게르만 사회들을 칭하는 것이었다. 인종적으로 슬라브족에 속하고 종교적으로 정교를 신봉하는 러시아 사회는 서구사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거니와, 서구 문명의 침투에 맞서 러시아 문명의 독자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되풀이하여 강조해 온 바였다.<sup>22)</sup> 민족주의 시기인 19세기에 이 같은 주장은 그를 민족주의

21 Леонтьев "Дополнение к двум статьям о панславизме",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81면; 같은 저자,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ев против Данилевского", 같은 책, 469- 470면; 같은 저자, 『Избранные письма』, 302면 등.

22 앞에서 소개한 그의 저작선집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에 수록된 정치, 종



자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레온티예프가 친슬라브파에 속한다는 해석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견해를 확대하여 그가 슬라브족에 속하는 다른 민족들의 민족주의적 노력에 대해서도 동조를 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논의는 단순하지 않다. 러시아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 자체가 특이할 뿐 아니라, 러시아 민족주의를 다루는 태도와 다른 민족들의 민족주의를 다루는 태도가 상이하여 때로는 두 경우에 그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복잡한 태도는 그의 민족주의관이 연원을 달리하는 두 가지 다른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하나는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그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민족운동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그의 판단이다.

첫째, 레온티예프는 한 사회의 독자성의 근거는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독자성에 있다고 생각하였다.<sup>23)</sup> 러시아 사회를 서구사회로부터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러시아 사회가 슬라브인의 사회라는 점이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가 슬라브 사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적 요소를 많이 가진 혼합사회라고 생각했다.<sup>24)</sup> 이러한 러시아 사회의 바탕을 이루며 이를 서구 사회로부터 구분지어 주는 것은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잔티움주의”였다. 그가 보는 비잔티움주의는 독자적 문화로서, 그 특징은 1)정교, 2)전제정, 3)현세에서의 완전성의 포기였다. 그는 러시아 사회가 1861년 농노제 이후 점차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이 사회를 “재(再)비잔티움화”(ревизантинизация)할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sup>25)</sup>

이에 반해 혈연집단으로서의 슬라브 민족 전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슬라브성(всеславянство), 혹은 슬라브주의(славизм)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그는 종교와 국가체제의 고유성이야말로 문화적 독자성의 바탕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고유성이 없다면 단순한 혈연적 집단으로서의 종족이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종족을 종족 자체로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까지 말하였다.<sup>26)</sup>

---

교 평론문들은 거의 모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입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평론문은 “비잔티움주의와 슬라브족”(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이다.

23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07-110면.

24 Леонтьев,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ёв против Данилевского”, 483면.

25 이 재비잔티움화라는 용어는 앞에서 소개한 야노프의 책 227면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슬라브족에는 문화적 독자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슬라브인들이 우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각기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레온티예프는 슬라브 민족의 공통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슬라브 여러 민족들의 개별적인 특수성들을 열거하였다. 이를테면 고대 불가리아인들과 고대 세르비아인들은 슬라브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민족이었고 비잔티움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기는 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들 초기국가도 종식되어 버렸다. 세르비아인들은 그 후 심각한 자체분열 상태에 빠짐으로써 슬라브적인 특성을 키워낼 수 없었고 불가리아인들은 그리스인들로부터 지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역시 순수히 슬라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체히인들은 슬라브어를 말하기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독일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슬로바키아인들은 슬라브어를 말하되 문화적으로는 마자르인들에 동화되어 있었으며 크로아티아인들 역시 헝가리인들(마자르인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서 러시아적인 것이 영향을 비칠 여지가 전혀 없었다.<sup>27)</sup> 여기에다 슬라브족이기는 하되 카톨릭을 신봉하는 폴란드인들의 경우를 더하면 슬라브인 상호간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는 더욱 뚜렷이 드러날 터였다. 레온티예프는 이 때문에 슬라브인들에게는 공통된 긍정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도 그의 문화적 독자성론은 혈연적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의 반동적 정치사상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레온티예프는 문화의 3단계 주기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에 입각하여 당대의 서구문명이 몰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파악하였다. 몰락과 쇠퇴의 징후는 서구인들의 삶의 방식이 획일화되고 단순화되는 데서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같은 획일화, 단순화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그가 보기에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였다.<sup>28)</sup>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을 평등지향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연장일 뿐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더 이상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반동”(реакция)<sup>29)</sup>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26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08면.

27 같은 글, 109-111면; Леонтьев “Еще о греко- болгарской распре”,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84면.

28 Леонтьев “Средний европеец как идеал и орудие всемирного разрушения”,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404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로서의 입장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에 불붙어 일어난 민족주의는 레온티예프가 보기에는 바로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민주주의 운동이었다.<sup>30)</sup> “반동사상가” 레온티예프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획일화와 단순화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평등화 과정인 민족주의는 두 가지 면에서 획일화를 가져오는 현상이었다. 그 하나는 민족 고유문화, 민족적 개성의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국가 형성의 결과로 역설적이게도 점차 민족국가의 경계가 소멸되고 그리하여 초국가적 연합체가 성립하리라는 것이었다.

민족 개성의 소멸이라는 면에서 레온티예프는 민족독립 후의 그리스·민족 통일 및 민족국가 수립 이후의 이탈리아·독일의 경우를 들었다.<sup>31)</sup> 그런데 여기서 레온티예프가 말하는 민족개성은 산업화 이전의 전근대 사회가 보여주는 민속학적·생활사적·미학적 측면에서의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성이 민족국가의 수립 이후에 소멸된다는 것이 레온티예프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는 민족국가 수립과 사회경제체제 변화 사이의 관계를 일직선적, 인과론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른바 평균적 인간의 출현 책임을 산업화와 정치적 자유주의에 돌리며 이를 비판하는 그가 민족주의 문제가 부각 될 때면 획일화의 책임이 민족주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해 버렸던 것이다.

이를테면 그리스의 경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유럽인들의 열화와 같은 지원을 받고 새로운 헬레니즘문화의 창달을 이루리라는 비장한 기대를 모았으나, 민족독립 후에 정신적으로 서방에 의존하면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친(親)그리스적 지식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sup>32)</sup> 그러나 그는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치하에 있을 때 민속학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생활방식의 고수 외에 정치적으로 더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29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34면.

30 Леонтьев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к орудие всемирной революций. Письма к О. И. Фуделю”,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513면.

31 같은 글, 514-518면.

32 Леонтьев “Плоды национ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на православном”,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542면.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전 분열 상태에 있을 때 이 나라들이 보여주었던 개성으로 레온티예프가 거론하였던 것은 교황행렬의 장엄함, 예술가들을 감동케 하였던 풍광명미, 지방들마다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전통 등이다. 즉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관찰자가 느끼는 즐거움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레온티예프는 사실상 그가 평생을 두고 집요하게 추구하였던 “통일 속의 다양성”이라는 미학적 기준<sup>33)</sup>을 민족문제에 다시 적용하여 민족주의를 비판하였다.

여기에 엄밀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비판이 덧붙여진다. 레온티예프는 문명의 몰락기에는 반동이 필요하다고 공언한 자기 확신을 가진 반동사상가였다. 그는 신분제와 불평등이 국가를 강화시킨다고 믿고 있었고<sup>34)</sup> 이런 관점에서 온갖 종류의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혁명적 사상과 운동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반면 신분제적 구체제 하의 복합민족적 제국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9세기의 민족주의 운동과 사상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피억압민족 혹은 봉건적 분열상태에 있는 민족들의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는 지니게 마련이었던 평등 지향적, 민주주의적 성격이 그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sup>35)</sup> 둘째, 특히 복합민족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들의 민족독립운동은 제국을 해체시키는 경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제국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레온티예프는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가 러시아 제국의 해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그가 보기에는 민족주의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혁명운동이었다. 따라서 그가 반동사상가로서 민족주의 운동을 비판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민족국가 형성의 결과로 민족국가의 경계가 소멸되고 그리하여 초국가적 연합체가 성립하게 된다고 보면

33 Леонтьев 『Избранные письма』, 393면.

34 Леонтьев, “Над могилой Пазухина”, 682면.

35 그는 민족독립, 혹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정하게 담지하던 진보적 성격과 관련하여 “오 가장스러운 평등! 오 비열한 획일성! 오 지긋지긋한 진보!”라는 구절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Леонтьев “Плоды национ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на православном”, 564면.

36 Леонтьев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к орудие всемирной революции”, 516면.

서 이러한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비판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는 <세계혁명의 도구로서의 민족정책>(1888)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모든 민족, 이 모든 국가, 이 모든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sup>37)</sup>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민주화, 동권화의 방향으로, 계급, 권력, 지방, 관습, 법률 등등의 내부적 혼호(внутреннее смешение)의 방향으로 엄청난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모두 다른 국가, 다른 사회들과 대폭 유사해지는 방향으로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구의 모든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그 전보다 더 서로 비슷해졌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종래의 것에 비해 더 규모가 큰 국가적 집합체가 성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곳에 따라서는 종래의 것에 비해 종족적 민족적 관점에서 더 순수한 국가적 집합체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이들 국가적 집합체는 다름 아니라, 놀랄 정도의 힘과 명료함을 갖추고 세계시민적 국가로, 즉 처음에는 소유립적인 국가이겠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전세계적인 국가가 될 그러한 국가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기구인 것입니다.”<sup>38)</sup>

이 때 그는 이러한 범유럽국가 혹은 세계정부 내의 개별 민족들은 아마도 오스만 투르크나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는 여러 민족들의 경우와는 달리 민족의 경계, 민족적 특징도 잃어버린 채 단일한 유럽국가 속에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의 개별 지역들이 더욱 큰 국가적 조직체로 통합되었듯이 라틴-게르만 민족들이 더 나아가 단일한 노동자 연방공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단일한 공화국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독재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 그의 예견이었다.<sup>39)</sup> 민족주의 시기인 19세기 후반에 유럽연합의 출현을 연상케 하는 이 같은 예견을 하였다는 것은 일견 놀라운 점이 있다. 그러나 레온티예프는 유럽연합이 민족국가들이 서로 비슷해지고 평등해진다는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자체의 결과로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극성의 결과로 빚어진 1,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후 적어도 유럽국가들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적 경쟁을 극복해야겠다는 유럽인들의 발상에 의하여 태동한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는 민족국가들이

37 1859년부터 1889년까지를 말한다.

38 Леонтьев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к орудие всемирной революции”, 516면.

39 Леонтьев “Средний европеец как идеал и орудие всемирного разрушения”, 426면.

수립되고 나면 민족국가들의 수립과정에서 확산되었던 내부적 평등화, 민주화의 경향이 그대로 연장되어 국가들 간의 불평등도 해소되고 이것이 초국가적인 연합체의 출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예견에는 민족주의 시대에는 평등 지향적 이데올로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가 간의 평등화 경향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판단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예견과 결과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라고 볼 수 없다.

레온티예프는 정치적으로 반동사상에 속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는 강력한 황제권력과 같은 세속권력을 찬양했고 제국을 찬양하면서 약소국 혹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의 민족주의 운동을 거부했다. 그는 러시아 제국의 유지를 열렬히 원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1870년대까지는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유지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메테르니히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같은 이른바 정통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 거부라는 그의 입장에는 정통주의적 입장의 세속권력자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광대한 국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자나 이 제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지배집단의 일원으로서 제국의 유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매개로 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는 특수한 입장에서 제국의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불가리아 교회분쟁에서 그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 4. 보편적 동방정교회의 옹호자로서의 레온티예프

레온티예프가 서구문화권에 대항하는 러시아 문화의 특성으로서 비잔티움주의를 들고 있었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이다. 그는 정교의 장점과 관련하여 신학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배의식의 장엄함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sup>40)</sup> 그러나 레온티예프는 어쨌든 서방교회와 구분되는 정교의 독자성은 명백히 인정하면서 정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에겐 이 같은 정교공동체 내에서는 국가나 민족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

40 Леонтьев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ев против Данилевского”, 501면.

은 신앙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였다. 그는 같은 혈연을 가진 슬라브인들의 정치적 대동단결을 지향한다는 정치적 의미의 범슬라브주의에는 극심한 반감을 표하는 반면 정교신앙의 형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종교적 국제주의를 지향하였다.

레온티예프는 이 같은 범(汎)정교권의 종교적 국제주의가 아토스산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 내에 위치해 있던 아토스산은 정교회 수도원이 밀집한 곳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에 속하되 투르크 관리인 카이마카의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레온티예프는 그 자신이 건강 문제로 실존적인 위기를 겪고 난 후 1870년대 초에 1년 정도 이 곳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sup>41)</sup> 그리고 이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토스산에서의 삶과 종교적 국제주의에 대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였다.<sup>42)</sup> 금욕적인 동방정교회 수도원 생활의 규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이 곳에는 여러 민족 출신 수도사들이 몰려들어 있었는데, 1870년대 초 이 곳에는 그리스인 수도원이 열일곱, 불가리아인 수도원이 둘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수도원이 하나 있었으며 수도사들의 수는 모두 팔천에서 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레온티예프는 파악하였다.<sup>43)</sup> 그 가운데 약 2500명 정도가 비(非) 그리스인이었다. 이곳에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고 그리스 성직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인인 레온티예프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았다. 영웅적 금욕과 고행이 요구되는 수도생활에서 민족적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출신민족과는 무관하게 아토스식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크게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sup>44)</sup> 또한 그는 러시아인 수도사들이 이 곳에서 자발적으로 고행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이 곳은 귀족공화국과 유사한 곳이라고 칭하여 그 정신적 엘리트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레온티예프가 보기에는 아토스 산에서 이처럼 종교를 매개로 한 초

41 그는 모스크바 대학 학생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자신이 진정한 정교도가 되고자 하여, 그리고 엄격한 수도사들이 자신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여 아토스산으로 갈 것을 결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Леонтьев 『Избранные письма』, 346면.

42 Леонтьев “Записка об Афонской Горе и об отношениях ее к России”; “Четыре письма с Афона”; “Панславизм и греки”; “Панславизм на Афоне” 등.

43 Леонтьев “Панславизм на Афоне”, 57면.

44 같은 글, 67면.

민족적 분위기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민족국가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민족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관할 아래 놓여 있는 덕분이었다. 그는 술탄의 정치권력,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의 종교적 수장권, 그리고 러시아의 재정지원 이 세 요소가 조화롭게 병행됨으로써 아토스 산의 내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sup>45)</sup>

아토스 산이 오스만 투르크의 정치권력 아래 계속 놓여 있는 것에 찬성하는 레온티예프의 태도는 정교의 총본산인 콘스탄티노플을 러시아가 장악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주장과는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는 러시아가 “황제의 도시”(짜리그라드)인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해서 교회를 국가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정교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스탄티노플 장악론은 정치적 범슬라브주의자들도 전개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범슬라브주의자들의 콘스탄티노플 장악론이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과 오스만 투르크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 획득까지 염두에 둔 팽창주의적 담론이었고 현실정치적 담론이었음에 반해 레온티예프의 초점은 달랐다. 그도 1880년대에는 러시아의 영토 재편성에 큰 관심을 가져, 발트해 연안 지방을 독일에 내주고 대신 도나우강 이남 지역을 러시아가 확보해야 한다는 영토교환론까지 전개하였지만<sup>46)</sup> 콘스탄티노플 장악과 관련한 그의 논의에서는 영토팽창 문제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내 기독교도들에 대한 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도 레온티예프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예카테리나 2세 치세에 체결된 퀴쿿 카이나리조약에서 러시아가 확보한 오스만 제국 내 기독교도에 대한 통제권 조항은 그 이후 러시아가 쇠약해져 가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공격하고 그 영토 가운데 일부를 획득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구실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레온티예프는 러시아 국가가 오스만 제국 내 정교주민들의 지위에 대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정교주민에 대한 개입권을 이용하여 오스만 투르크를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870년대까지는 오스만 투르크야말로 정교를 신봉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했고 아토스산의 종교적 국제주의를 위해서도 오스만 제국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45 같은 글, 80면.

46 Янов 『Россия против России』, 227-229면.

47 그는 “아토스산의 범슬라브주의”라는 글에서 정교의 순수이익은 회교국가의 안녕과 긴



따라서 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해야 한다고 레온티예프가 주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교회의 본산으로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었을 뿐이다. 아토스 산의 경우, 종교적 중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상징성은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 치하에서 더 그 내적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분리는 생각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토스 산이 특정한 정교민족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민족적 구분에 따른 갈등이 오히려 이 산에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5. 불가리아 교회 독립에 대한 비판론

정교적 동방사회가 카톨릭-프로테스탄트적 서방사회에 맞서서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레온티예프의 입장에서 볼 때 개별 민족들이 독립 교회를 가지려고 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정교 신봉 민족 가운데 슬라브족이 아닌 것은 그리스인과 루마니아인들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그리스인들의 종교적 거취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레온티예프는 슬라브인들이 슬라브주의나 민족주의의 이름 아래 그리스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정치적 범슬라브주의에 반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혈연중심의 연대가 강조되다 보면 그리스인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이었다. 그는 서방세력에 대항하는 동방세력의 연합에서 그리스가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sup>48)</sup>

그렇다고 교회독립이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레온티예프는 이와 관련하여 정교사회에서 개별교회의 독립수장권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를 거론하였다. 그 하나는 비잔티움 시대에 이미 독립교회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던 안티오키아·알렉산드리아 교회 등이고, 다른 하나는 신(新)그리스 교회·세르비아 교회·러시아 교회 등 정치적으로 독립한 국가의 교회이다. 레온티예프는 정치적 독립 없이는 교회독립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Леонтьев “Панславизм на Афон”, 80면.  
48 Леонтьев “Панславизм и греки”, 55면.

그 같은 입장에서 볼 때 1870년의 불가리아 교회 독립은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레온티예프는 불가리아 교회의 독립과 관련하여 불가리아 사회와 그리스 사회에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던 1870년대 전반에 이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글들을 집필하였다. 이들 글에서 레온티예프는 혈연적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종교우위의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그는 민족교회 독립을 고집했던 불가리아인들을 비난하는 반면, 그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그리스 정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서방세계에 맞서는 동방연합에서 러시아는 슬라브인들보다 오히려 루마니아인, 마자르인, 그리스인 등 비슬라브인들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견한 반면 러시아가 불가리아인들의 민족적 염원을 그대로 추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9)</sup>

레온티예프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리아 민족과 러시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에서 불가리아는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으로는 레온티예프는 불가리아가 전체 슬라브인들 중에서도 러시아에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가 보기에 불가리아의 처지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체히인이나 크로아티아인들과도 달랐으며, 또한 독자적인 국가적, 법적 제도와 민족적 중심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서 러시아를 냉정하고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볼 여유가 있던 세르비아인들과도 달랐다. 당시의 불가리아인들은 독자적 국가조직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민족적 중심지도, 수도도, 고등교육기관도 가지지 못한 “국가적 고아 상태”(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иротство)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유럽도 러시아도 아니고 오로지 투르크의 정치권력뿐이었다. 게다가 불가리아는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에 가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리아 젊은이들이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정신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친(親)러시아적이 되어 불가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러시아의 힘을 빌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이런 점에서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가까울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민족적 염원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러시아인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레온티

49 Леонтьев “Еще о греко-болгарской распре”, 87면.

50 Леонтьев “Панславизм и греки”, 45면.

51 Леонтьев “Еще о греко-болгарской распре”, 84-85면.

예프는 인정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병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한 나이든 불가리아 지식인과의 대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sup>5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리아인들은 러시아인들과 너무나 먼 민족이라고 레온티예프는 판단하였다. 그것은 두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의 견해로는 체히인들은 후스의 처형에서 보듯 카톨릭 세력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고 이런 점에서 러시아인들과 가까워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반해 오히려 불가리아인들이야말로 러시아인들의 대(大)러시아적 기반에 가장 심하게 대립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가리아인들은 부흥한 슬라브 민족들 가운데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늦게 출현한 민족”인데, 체히인들도, 폴란드인들도, 세르비아인들도 아니고 바로 이 불가리아인들이 “러시아에 가장 위협한 민족”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 위협성은 곧 불가리아와 러시아가 드러내는 원칙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곧 러시아의 원칙은 “비잔티움주의”인데 반해 불가리아의 원칙은 “종족적 슬라브주의”이기 때문이었다.<sup>53)</sup>

따라서 레온티예프는 같은 정교를 신봉하면서도 그리스인들과 갈등을 빚는 불가리아인들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는 교회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당시의 불가리아인들을 일컬어 “미숙하고 무장도 안 되어 있고 배우지 못하고 몽매한 민족”이라고 혹평하였을 뿐 아니라,<sup>54)</sup> 또 어떤 글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신의 무구한 어린 양이 아니라 교활하고 교묘하고 완고한 민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성숙한 다른 이웃민족들로부터 자민족을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민족”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sup>55)</sup> 그가 보기에 불가리아 인민은 러시아 인민처럼 그렇게 열렬히 종교적이지 않고, 미숙하다는 의미에서 단순하였던 반면,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불가리아 인텔리겐찌야는 성공적인 민족적 외교적 투쟁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교활하고 강인하고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불가리아인들은 종교보다 민족적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정교 자체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56)</sup> 레온티예프는 불가리아인들이 교회독립 운동 초기 국면에서

52 같은 글 92-93면.

53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12면.

54 Леонтьев “Еще о греко-болгарской распре”, 91면.

55 Леонтьев “Панславизм и Греки”, 45면.

자신들을 위해 슬라브인 성직자를 요구하고 슬라브식 교회의식(儀式)을 요구한 점은 옳았으나, 그 후 정치적 독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교회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하였다.<sup>57)</sup> 그는 자신이 “세계교회(вселенская церковь)”라고 부르고 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산하 그리스 정교회 조직은 원칙적으로 그리스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슬라브적일 것도 없어서 특별히 민족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가리아인들이 굳이 이로부터 분리할 것을 고집하였다는 점<sup>58)</sup>을 용납하기 힘들어하였던 것이다.

레온티예프는 불가리아 교회독립을 둘러싸고 그리스인들과 불가리아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리스인들이 불가리아인들을 증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러시아가 불가리아인들을 편들 것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인들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 들었다. 실제로 불가리아 민족교회의 독립은 러시아의 지원 없이 투르크 정부의 기독교도 분열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불가리아 교회독립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부정적 견해는 10여년 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불가리아인들이 교회독립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을 성취하였던 1884년에 집필한 한 짧은 글에서 그는 불가리아 민족을 ‘대단치도 않고 어딜 보나 아무짝에도 신통한 일을 할 사명을 띠지 않은’ 민족이라고 혹평하면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획책했던 ‘교회분열’(раскол)을 비난하고 있다.<sup>59)</sup> 그들은 교회독립문제에서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온갖 수단을 써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불가리아인들이 제멋대로 교회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러시아 당국에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점도 그에게는 불만의 대상이었다.<sup>60)</sup> 이러한 레온티예프의 비판은 종교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불가리아인들의 이 같은 민족적 분리주의 노선이, 요컨대 독창적인 문화유형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56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13-115면.

57 Леонтьев “Панславизм на Афоне”, 66면.

58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55면.

59 Леонтьев “Дополнение к двум статьям о панславизме”, 81면.

60 Леонтьев “Плоды национ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на православном Востоке”, 559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불가리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범슬라브주의에서 당연한 포섭의 대상이었던 슬라브인 전체라는 개념에 대해 그는 끝까지 냉소적 평가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 남슬라브인들 및 서슬라브인들은 나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바로 이 문화적 독창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러시아인들에게 단지 정치적 필요악밖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 민족은 오늘날까지 자기네 ‘인텔리겐찌야’ 가운데에서 지극히 범속하고 지극히 평범한 당대 부르주아지 외에는 아무 것도 세상에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61)</sup>

레온티예프는 형태는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이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sup>62)</sup> 이 같은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민족의 정치적, 교회조직적 독립이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념을 표현할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합스부르크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슬라브인들의 독립, 자치도 이것이 이 민족들 속에서 독자적 문화의 발전을 가져다 줄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가 불가리아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독립에 대해 끝내 아무런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독립이 이 민족 내에서 이른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지적 생활양식의 발전에는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도 문화적 독자성의 형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화적 독자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찰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미학적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레온티예프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평가를 내리곤 하였다.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독립이라는 명분의 실현과정에서 러시아 제국에 심정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자발적으로 기대하기까지 하였던 불가리아인들에 대해 그가 끝내 냉담한 평가를 내린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고려를 압도하는 평가요인은 다름 아니라, 정교 문화권의 단결을 강화하여 서방문명권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하던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리아 교회측 행위가 정교권 내부에서의 분열로 여겨졌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61) Леонтьев “Дополнение к двум статьям о панславизме”, 81면.

62) Леонтьев “Византизм и славянство”, 129면.

## 5. 맺음말

러시아 제국 내에서 범슬라브주의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불가리아 교회의 독립문제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견해를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레온티예프는 문화적 민족주의자로서 이른바 '비잔티움주의'에 바탕을 둔 러시아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는 혈연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가졌고 따라서 슬라브인들의 대동단결이라는 정치적 구호도 문화적 공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한 구성민족이었던 불가리아 민족은 그의 판단에 따르면 특별히 슬라브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약소민족 혹은 분열상태 민족의 정치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포한 혁명적, 진보적 성격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불가리아민족의 정치적 독립의 준비단계로서 이루어졌던 교회독립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견해는 이런 전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가리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로부터 자민족 교회를 독립시키고자 하였던 까닭에 그리스인들과 불가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던 시절에 일련의 글을 집필하여 불가리아인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교회분열을 획책하고 있음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러시아는 이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반서구주의자로서, 서구문명에 맞서는 동방세력의 대단결은 정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 같은 세력연합에 그리스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가 내세웠던 '러시아의 콘스탄티노플 장악론' 역시 이 같은 정교권 대동단결이라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불화를 빚으며 정교권 대단결이라는 명분에 과열음을 내고 있던 불가리아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범슬라브주의자가 아니라 범(汎)정교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가리아 민족의 교회독립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부정적 견해는 이 민족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후까지 계속되었다. 이 민족이 자체의 독자적인 문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과연 레온티예프에게는 시간을 가지고 한 민족의 문화적 발전을 지켜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도 불가능하였을까? 불가리아인들이 교회독립 당시, 그리고

정치적 독립 당시에는 두드러진 문화적 독자성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집필하던 시기는 불가리아인들이 독자적 생존을 이제 겨우 시도하던 무렵이라,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시간을 채 가지지 못하였음을 감안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를 고려해 주지 않은 채 약소국민의 민족주의를 비난한 것은 러시아 황제의 대국주의적 신하 레온티예프의 오만함의 소치가 아니었을까?

## 참고문헌

- Дрожева, Г. М.(1995) 『Проблема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го идеала в социально-философских воззрениях К Н Леонтьев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Москов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церкви』, т. I ~ IX (1994-1997), Москва.
- 『К. Леонтьев: pro et contra. Личность и творчество Константина Леонтьева в оценке русских мыслителей 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нига 1-2』(1995),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Леонтьев, К. (1996) 『Восток, Россия и славянство』, Москва.
- (1993) 『Избранные письма 1854-1891』,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1912-3)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К. Леонтьева』, т.5-8, Москва.
-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К. Леонтьева』, т. 9,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Янов, А. Л.(1999) 『Россия против Росси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1825-1921』, Новосивирск.
- Crampton, R. J.(1997) 『A Concise History of Bulgaria』, Cambridge.
- Fadner, F.(1961) 『Seventy Years of Pan Slavism in Russia. Karazin to Danilevskii 1800-1870』,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Jelavich, B. (1999) 『History of the Balkans.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vol. 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lavich, Charles and Barbara (2000) 『The Establishment of the Balkan National States 1804-1920』, Seattle and London.
- Lukashevich, S.(1967), 『Konstantin Leontev(1831-1891): A Study in Russian "Heroic Vitalism"』, New York.
- Petrovich, M. B. (1956) 『The Emergence of Russian Pan Slavism 1856-1870』, New York.
- Pundeff, Martin V.(1994) "Bulgarian Nationalism",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ed. by P. F. Sugar & I. J. Lederer, Seattle & London.
- Stavrianos, L. S. (2000) 『The Balkans since 1453』, New York.
- Walicki, A. (1989), 『The Slavophile Controversy. History of a Conservative Utopia in Nineteenth-Century Russian Thought』, tr. by Hilda



Andrews-Ruciecka, Notre Dame, Indiana.

Zenkovsky, V. V.(1967),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volume one tr.  
by G. Kline, New York.

清水昭雄 (1995) “K. 레온치예프 研究小史”, 『*ロシア史研究*』, 第 57號.

**Abstract****Konstantin Leont'ev on the Independence of  
the Bulgarian Church****Hahn, Jeong-Sook**

Not much has been settled about Konstantin Leont'ev(1831-1891), but he has indeed a unique place in the history of Russian thoughts. He is one of the most popular pre-revolutionary thinkers in post-Soviet Russia trying to come in terms with its own historical development. This article focuses on Leont'ev's critique on the independence of the Bulgarian church during the high tide of Russian Pan-Slavism (1870's), linking it with his critique of nationalism.

Leont'ev was deeply convinced of the originality of Russian culture, based on the so-called "Byzantinism". In his typology,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of cultural affinities was religion. He was sceptical about the political Pan-Slavism which he thought was senseless without cultural solidarity among the Slav nations. Moreover, as a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thinker, he was against the progressive and revolutionary character of nationalism. Thus, he was critical of endeavors to obtain national independence or unification.

The Bulgarian nation, which was subjected to the Ottoman sultan since 1393, had in his view no specifically Slavic characteristics. When the Bulgarian people insisted on a separation from the Greek Patriarchate of Constantinople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ir own national autocephalous church—which they had had before the Ottoman rule—and when it caused conflicts among Greeks and Bulgarians, Leont'ev furiously

criticised the latter. He declared that the ecumenical(вселенская) Orthodox Church doesn't have any national characteristics, may it be Greek or Bulgarian, and that the Bulgarians established their national church only for political aims. He sympathized with the Greeks, though the Bulgarians expected support from Russia, their "elder Slavic brother". Leont'ev eagerly assured the Greeks that Russia won't take side with the Bulgarians.

Such attitude is to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Leont'ev's conception of the Orthodox bloc—the solidarity of eastern Orthodox peoples against western culture. He thought that the Orthodox bloc should by no means exclude the Greeks. His suggestion to his Russian compatriots to seize Constantinople (Istanbul) was also a part of the anti-western strategy. He objected to the nationalist position of the Bulgarian people because it undermined the prospect of solidarity among the Orthodox peoples.

Leont'ev's critique of the independence of the Bulgarian church did not change even after this nation was liberated from the Ottoman rule. As for him, the Bulgarian culture did not evince cultural uniqueness in spite of its political autonomy. Leont'ev was in this sense not a Pan-Slavist, but a sort of Pan-Orthodoxy protagonist. But was Leont'ev, a loyal subject of the Russian tsar, not too arrogant in that he brushed off the cultural potentials of a lesser nation which can mature and flower only in favorable conditions?